

作家와 歷史解釋

— 春園, 東仁, 月灘의 歷史小說을 中心으로 —

趙 鎭 基

<內 容>

- | | |
|----------------|--------------------|
| I. 序 論 | 2. plot-Action의 樣相 |
| II. 歷史와 歷史小說 | 3. 主題(忠義觀)의 樣相 |
| III. 作品 構造의 樣相 | IV. 結 論 |
| 1. 人物의 樣相 | |

I. 序 論

歷史小說이란 歷史에 바탕을 둔 小說이다. 그러나 歷史에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歷史 그 自體일 수가 없으며 作家이 想像力에 依하여 再構된 하나의 虛構(fiction)의 世界이다. 그런 점에서 歷史와 歷史小說의 差異點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¹⁾을 通하여 周知하는 必의 必然性 혹은 蓋然性에 依하여 小說의 한 장르로 包容되어 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歷史라는 過去의 事件도 固定不變의 단순한 過去의 事實이 아니라는 點이다. 그리하여 E. H. Carr 는

1) 詩人의 任務는 실제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즉 蓋然性和 必然性의 法則에 따라 可能的인 것을 말하는 點에 있다는 事實이다. 歷史家와 詩人의 差異點은 類文을 쓰느냐 혹은 散文을 쓰느냐 하는 點에 있는 것이 아니라……中略……一者는 實際로 일어난 것을 말하고 他者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말하는 點에 있다. 따라서 詩는 歷史보다 더 哲學的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詩는 普遍的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많고 歷史는 個別的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Aristoteles; poetica(孫明鉉譯), 博英社, p. p. 62~63.

歷史上의 事實은 純粹한 形態로 存在하지도 않고, 또한 存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코 純粹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것은 記錄者의 마음을 통하여 항상 屈曲(refracted)된다. 따라서 우리가 歷史冊을 읽으려 할 때 제일 먼저 關心을 두어야 할 일은 그 책 속에 어떤 事實들이 실려져 있느냐 하는 問題보다도 그 책을 쓴 歷史家가 어떤 사람인가가 問題되어야 한다.²⁾

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겠다.

歷史란 歷史家와 歷史의 事實 사이의 相互作用의 持續적인 過程이며, 現在와 過去 사이의 끊임없는 對話다.³⁾

歷史, 그것은 單純한 過去之사가 아니며 現在와의 關聯하여 새로운 意味와 解釋을 낳게 해 준다는 점을 認定할 때 그것을 素材로 하여 쓰여지는 歷史小說에 있어서 作家의 歷史解釋(創造行爲)은 作家의 個性에 알맞게 再解釋되어 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노릇이다. 이처럼 歷史小說은 一般의 小說과는 또 다른 特異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더욱 作家의 個性이 問題視될 수가 있겠다.

歷史小說의 特異性이라 할 때, 歷史小說은 歷史를 生動하는 人生으로 再現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一般小說보다 主觀的 小說樣式이 된다는 點과, 行動과 事件을 主軸으로 하는 事件小說⁴⁾이란 點과 모든 事件이나 人物을 直接觀察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歷史小說은 浪漫主義小說⁵⁾이란 點을 指摘할 수가 있겠다.

이처럼 歷史小說은 一般小說과는 달리 主觀的 文學樣式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作家의 人生觀 乃至는 藝術觀, 歷史觀을 가장 容易하게 把握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同一한 歷史의 事件—首陽大君의 王位篡奪—을 素材로 한 春園의 「端宗哀史」, 東仁의 「大首陽」, 月灘의 「목메이는 女子」를 中心으로 各 作家의 特性을 把握하려는 데 焦點을 둔다.

2) E. H. Carr: What is history, a pelican Book. p. 22.

3) E. H. Carr: ibid. p. 30.

4) E. Muir: The structure of the novel. London. 1957. p. P. 20~23 參照

5) 金浩洙: 自然主義再考, (現代韓國文學의 理論所收) p. 83 參照.

II. 歷史와 歷史小說

앞에서 若F 叙述한 바와 같이 歷史와 歷史小說의 關係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分明히 밝히 둘 것은 歷史의 記錄이 歷史小說일 수는 없다는 點이다. 歷史小說이 小說이기 爲해서는 무엇고다도 作家의 創造行爲여야만 한다는 點을 看過할 수는 없겠다. 여기서 作家의 創造行爲란 다만 지나간 時代의 풍속이나 道德 혹은 特殊한 歷史的 偉人의 生涯를 興味있게, 또는 史實과 附合되게 그려 놓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歷史小說이 할 수 있는 일은 옛날에 있었던 그대로 描寫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過去의 歷史 中에서 찾아내어 小說化하는 것⁶⁾이기 때문에 作家의 創造行爲란 過去의 史實을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過去의 史實이 現代의 우리의 生活에 어떤 새로운 色調를 가지게 再解釋하여 現在 生活에 하나의 典據를 마련해 줄 때만 비로소 歷史小說의 存在理由가 成立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歷史小說이 지닌 문제는 二重의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그 하나는 歷史的 事實의 再現이란 點과 아울러 문학으로서의 諸條件, 이를테면 文學이 갖는 普遍性, 自己完結, 形象性, 具體性⁷⁾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兩端에 歷史小說이 存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歷史小說家의 創造行爲도 이상의 歷史小說의 갖는 特殊性을 고려하지 않고는 正當한 意味의 歷史小說은 成立될 수 없게 된다. 個別的 史實이나 偉人을 通하여 時代의 典型을 創造해야 할 것이다. 現在와 단절된 過去의 事件이나 現在 生活에 아무런 關聯도 없는 偉人의 이야기는 歷史小說로서의 價値를 지닐 수 없게 된다.

以上에서 略述한 바와 같이 歷史小說이 지니는 二重의 負擔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1920年代 韓國文學에 있어서는 歷史小說이 꽃피기 始作했다. 그것은 文學 外的인 事情에서 더 큰 理由를 찾을 수 있겠다.

韓國에 있어서 歷史小說의 出現은 1924年⁸⁾에 비롯되었다. 以後로 春園을 비롯하여 東仁에 이르기까지 많은 作家에 의하여 歷史小說이 發表되었다.

6) 申東旭：韓國現代文學論，博英社刊，p. 112.

7) 金允植：歷史文學의 方法論의 展開，現代文學 100號，p. 397.

8) 1924年 白潮 4號에 月瀨의 「목메이는 女子」가 發表되면서 부터라 하겠다. 물론 그 以前에 春園에 의하여 「嘉實」(1923年)이 發表되었으며 燕岩小說에 바탕을 둔 「許生傳」(1923年)이 發表되었으나 嚴格한 意味의 歷史小說이란 範疇에 넣을 수 없겠기 때문에 韓國歷史小說의 出發은 月瀨에서 부터라 하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1920年代의 韓國의 現實은 너무나 암담했다. 日帝는 經濟的, 文化的으로 韓國의 自主, 自立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日帝는 土地 調査事業⁹⁾을 實施하여 土地를 強奪하고 韓國을 그들의 食糧 및 자원 供給 地化했다. 文化的으로는 그들 스스로 植民化를 피하기 爲하여 日製 韓國 史를 강요하여 民族抹殺 政策을 폈다.¹⁰⁾ 이러한 文學 外的 狀況에 依하여 文學이 現實쪽에서 벗어나 過去의 史實에 바탕을 둔 歷史小說이 出現을 不可避하게 했다.

日帝의 彈壓은 우리文學에 까지 깊숙히 파고 들었다. 때문에 深刻한 現實問題를 直接的으로 小說 속에 反映할 條件이 몹시 不便하거나 不可能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爲政者들의 마위를 거슬리게 되고 文學의 終止符를 찍게 마련이니까 말이다. 이러한 危機에서 가장 賢明한 짓길을 開拓한 것이 歷史小說이다.¹¹⁾

上記 引用文에서 우리가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歷史小說의 出發이 現實逃避의 手段으로 轉落할 危險을 內包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歷史의 傳達이란 側面에서 머무를 수 있는 素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는 春園의 一聯의 歷史小說을 遙히서 如實히 日曆하게 된다.

그러나 文學이 時代의 狀況을 度外視하고 現實逃避의 立場에 머물 때 그것은 단순히 興味中心이 消費文學에 不過할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小說은 當代의 社會文脈과 關聯下에서 비로서 그 價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든 말한 바와 같이 歷史小說이 現在의 斷絶된 狀態에서가 아니라 現在의 文脈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은 以上과 같은 理由에서 연유된다. 그리하여 作家의 歷史解釋은 歷史家의 그것보다 더 高次的의라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重要的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Ⅲ. 作品構造의 樣相

歷史小說은 歷史의 事件을 素材로 하여 쓰여지는 것이라 할 때 同一한 素材라 하더라도 作家의 創造過程에 따라 相異なる 樣相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春園 東仁 月灘의 作品에서 나타나는 人物의 樣相,

9) 土地調査事業은 1912년에 公布되었으나 이로 인한 韓國人 地主는 몰락하고 1916年の 統計에 依하면 純小作農은 全農家의 36.8% 自作農 小作農은 40.6%에 이르렀었다. 李基白：國史新論，P. 345 參照

10) 亞細亞問題研究所；日帝下の 民族運動史(p.64 參照) 및 李基白；國史新論 (p. 345 參照)

11) 尹炳魯：葉錢의 悲哀，青潮閣，p. 328

plot Action, 忠義觀의 樣相等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人物(性格)의 樣相

歷史小說에 登場하는 人物은 實際로 存在했던 人物이다. 그렇다고하여 歷史小說에 登場하는 人物의 樣相은 결코 同一할 수 없다. 이 點은 Maughan의 다음의 말에서 克明하게 나타나고 있다.

作家는 實際人物을 模倣하지는 않는다. 그는 實際人物에서 그가 願하는 바를 取한다. 즉 그의 注意를 이끄는 몇가지 特徵이나 상상력을 일으켜 中心的 變化같은 것을 취해서 거기에서 人物을 構成한다. 그는 정말로 실제人物과 類似性을 갖고 있는지의 如否에는 關心을 갖지 않고 自己自身의 目的을 爲해 편리하게 그럴듯한 人物을 創造하는 데만 關心을 갖는다.¹²⁾

上記 引用文에서와 같이 歷史小說도 小說인 以上 단순히 歷史 속의 人物만은 아니다. 그것은 作家가 말하려는 主題와 附屬되도록 再構된 人物이라는 點을 看過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問題도 歷史의 人物과 어떠한 相異點을 찾아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歷史小說의 人物에서 把握해야 할 點을 申東旭教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하나의 人物을 그릴 때, 그 人物이 훌륭하게 自己理想을 수행함에 있어서, 왜 그것이 可能했으며 또 그것이 과연 그 時代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 人物의 歷史的 背景과 社會的 環境과 얼마나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解答없이 人物은 描寫될 수 없다. 한 사람의 英雄이 偉大하고 重要한 것은, 그 사람의 時代와 社會가 英雄의 理想과 行動에 一致되었거나, 그것을 강렬하게 구했기 때문이다.¹³⁾

이렇게 볼 때 春園과 東仁, 그리고 月灘의 作品에서 보이는 人物의 樣相은 상당히 다른 色調를 띄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作家의 人物에 對한 解釋의 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중〉에 對한 경우.

春園; 인자하고 병약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학식과 시화에 능하고 성인의 도량을 가지신 분.

12) Somerset Maughan: Summing up, p. 57

13) 申東旭; 前揭書, p. 116

東仁; 마음과 몸이 약하고 시기심과 의심이 많으며 왕위에 오를 능력이 없는 시라소니.

月灘; 인자하고 신하를 아끼는 賢君.

<단종>에 對한 경우

春園; 수양의 힘에 밀려 왕위에서 쫓겨남.

東仁; 수양을 믿고 새로 맞이한 왕비와 많은 시간을 갖고자 스스로 上玉이 됨.

月灘; 수양의 힘에 떨며 단종이 선위한다는 美名下에 단종이 왕위에서 밀려남.

<수양>에 對한 경우

春園; 律 한 首 지을 줄 모르고 난봉꾼으로 부왕께 걱정을 끼치고 궁중에 웃음거리며 조카를 밀어내고 忠臣을 殺害하고 왕위를 차지한 人物

東仁; 성격이 활달하고 용기와 통솔력이 있어 왕자중 출중하여 단종이 그의 능력을 믿고 왕위를 선위받음.

月灘; 야심가로서 왕위찬탈자.

<申叔舟>에 對한 경우

春園;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절하는 人物.

東仁; 수양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충직한 臣下.

月灘; 자식의 生命을 구하기 위하여 변절하는 人物.

其他 死六臣, 김중서, 한명회等の 人物에 對한 解釋도 春園과 月灘은 史家들의 見解에 충실히 따르는 反面, 東仁의 경우에는 反對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以上の 人物을 通하여 볼 때 그들 作家들이 다루고자 한 것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쓰여진 時代的 狀況을 어떻게 處理하고 있는가도 問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세 作家에 있어서 共通의 人 要素로 보이는 것은 現實과의 對決이 없이 단순히 復古의 人 感傷에서 出發했다고 볼 수 있겠다. 日帝治下라는 암울한 時代的 狀況에서 現實逃避의 手段으로 過去라는 歷史物에 關心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文學이 단순한 消費文學으로 轉落하지 않고 歷史보다 더 高次的이라 할 때의 文學의 機能은 보다 진지한 現實的인 Reality를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임은 自明한 노릇이다.

對決精神과 自己究明이 없는 作品은 단순한 歷史의 抒情化요, 浪漫化에 불과하다. 곧 歷史는 空虛한 觀念이나 教訓이나 추상이 아니고, 具體的이며 복잡미묘한 「리아리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¹⁴⁾

對決意識이 없는 歷史小說은 歷史의 抒情化라 할 때 韓國文學에 있어서 極少數의 作家를 除外하고 大部分의 作家에게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것은 春園, 東仁, 그리고 月灘에게도 해당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들 作家의 作品에서 對決意識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作家의 作品에서 보이는 對決意識이란 권선징악적인 對決이 強調되는 反面 對社會的인 對決은 극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作品의 出發은 善人과 惡人에 對한 區別에서 出發하고 있다. 어떤 필연성에 의하여 人物이 形象化되어 진다기 보다는 先天的 氣質에 依하여 다루어지고 있음은 그들의 對社會意識 및 歷史意識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이들 作家의 歷史에 對한 態度라 하겠다. 실상 春園과 月灘은 철저하게 歷史의 立場에 서서 作品을 집필한 反面, 東仁은 史家들의 歷史解釋에 反撥하고 새로운 角度에서 歷史를 解釋하려는 態度를 지니고 있음은 興味로운 일이다.

春園의 「端宗哀史」는 東仁의 지적대로 歷史의 事實에 充實한 史話¹⁵⁾라 할 수 있겠다. 春園의 端宗哀史에 있어서 重要한 機能은 歷史에 對한 知識이 不足한 一般讀者에게 우리 歷史를 알려 준다는 以外에는 다만 弱者에 對한 感傷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端宗廢位라는 歷史의 事件에서 問題視되어야 할 것은 廢位事件의 不當性을, 忠臣의 죽음의 意味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1920年代의 狀況과 關聯을 맺어서 現代의 意味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重要한 問題를 外面하고 단순히 過去의 事件으로 叙述할 때 그것은 한낱 지나간 興味있는 이야기에 不過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다른 一聯의 作品 — 元曉大師, 異次頓의 死 — 에서도 同一한 現象을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初期作品系列에서 보이던 강열한 民族意識과, 傳統的인 것에 對한 盲目的인 拒否意識은 많이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春園의 「端宗哀史」에서 首陽의 王位찬탈 行爲를 1920年代의 日帝侵略이란 歷史의 事實과 關聯지워 볼 수도 있으리라. 단종의 폐위, 그것은 國權을 상실한 20年代 韓國의 現實이요 수양은

14) 鄭昌範: 歷史小說과 리아리티, 現代文學通卷10號所載, p. 169

15) 金東仁: 春園研究, 東仁全集3卷, p. 512~513 參照.

곧 日帝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作家의 意圖¹⁶⁾와는 거리가 멀다. 실상 春園의 端宗哀史에서 보여준 人物은 古代小說的인 善人과 惡人의 人物類型을 다시 보여준 것에 不過한 것이며, 讀者에게 同情을 救하는 感傷의 문학이다.

한편 月灘의 「복매이는 女子」에서 보여지는 人物은 春園과 같이 歷史에 充實하면서 申叔舟의 變節行爲에 필연성을 부여하였다. 月灘은 史家들의 評價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면서 단순히 歷史의 再現이란 領域을 넘어서서 人物의 內面的 갈등을 通하여 人爲的인 忠誠보다 子息에 對한 사랑이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月灘의 作品에 對하여 金宇鍾氏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月灘은 申叔舟가 變절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시인해 놓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심리적인 變遷과정을 그려 나갔다. 한 人物이 變節者가 되기까지의 內面的인 心境變化라는 것은 歷史家가 취급할 分野는 아니다. 申叔舟가 變節했다는 客觀的인 사실은 作家가 마음대로 날조할 수 없는 歷史家들의 作業分野지만 그가 變절하기까지의 內面的인 심정변화는 作家가 어떻게 그려나가는 그것은 그의 自由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史實」의 분야가 아니라 「想像」의 분야이기 때문이다.¹⁷⁾

위의 引用文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月灘은 春園과 同一한 立場에서 出發했으나 단순히 歷史의 再現에 머물지 않고 小說로서 昇華시켰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月灘의 作品에서 強調하고 있는 忠誠보다 子息에 對한 愛情을 優位에 둔 點은 李朝社會에서는 重要한 意味를 지니게 된다. 忠을 최고의 倫理德目으로 믿어오던 社會制度에서 個人的인 血肉愛를 張調함은 封建社會에서 個人社會로의 전환을 意味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매이는 女子」에서 申叔舟의 變節行爲와 尹氏夫人의 自殺行爲는 對照的인 現象이다. 그러므로 申氏夫婦의 對照的인 行動에서 忠과 子息愛사이의 不調和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月灘이 提示한 人物은 春

16) 나는 나의 부조한 몸의 힘과 마음의 힘이 허하는대로 조선 역사의 측도요, 조선의 성격의 산 그림인 단종대왕 사건을 그려보려 한다. (端宗哀史 作者의 말 全集 16. p273)

지금 내가 쓰는 根據는 그 正史와 野史의 두가지인데, 그러기에 아무쪼록 作者의 幻像을 빼고 歷史에 나오는 事件 그대로, 또 實際人物 그대로 文學上에 再現시키기에 애쓰는 터이다. (端宗哀史에 對하여, 全集 16. p.274)

17)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宜明文化社, p.170

園이나 東仁처럼(後述하겠음) 처음부터 人物에 對한 善惡의 區別을 하지 않고 狀況과 關係를 맺는 平凡한 Low Mimetic Mode¹⁸⁾란 點에서 近代의인 歷史小說의 一方法을 提示해 주었다고 하겠다.

東仁의 「大首陽」은 上記 두 作品에 比하면 出發부터 差異가 있다. 春園과 月灘이 史家의 見解에 肯定的인 立場에서 出發한데 反하여 東仁은 否定的인 立場에서 出發했다. 이 點은 오직 「大首陽」에 局限되는 問題가 아니라 그의 全歷史小說에 다같이 該當된다. 이러한 點은 東仁이 투철한 作家意識이나 歷史意識에서 出發했다기 보다는 차라리 春園文學에 對한 否定에서 緣由된 것이라 보는게 妥當할 것 같다. 이것은 端的으로 春園이 端宗哀史(1929)에 對하여 大首陽(1931), 麻衣太子(1926)에 건원(1938), 사랑의 東明玉(1948)에 서라벌(1947)等 同一한 素材로서 作品活動을 했다는 것은 春園文學에 對한 否定과 批判에서 出發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春園의 善追求에 東仁은 美의 追求라는 命題를 내걸고 作品活動을 했음은 周知하는 事實이듯이 「大首陽」도 그런 範疇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大首陽」에서 보이는 人物의 性格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거니와 그들 人物들이 가진 性格上의 問題는 春園의 端宗哀史의 正反對의 立場이라는 點을 指摘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東仁의 大首陽은 물론나무 선 端宗哀史¹⁹⁾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들 人物들이 時代와의 關係에서 어떤 意味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다만 時代와 유리된 狀況에서 生活하는 人物로 그려졌음은 東仁의 歷史意識이란 것도 20年代라는 時代의 特殊狀況과 關聯지워 생각할 때 거기에는 民族意識도 저항의식도 없다 도리혀 王位찬탈을 合理化함으로서 日帝侵略을 肯定하는 姿勢마저 보이고 있다는 點에서 春園의 端宗哀史에서 보다 더 큰 絶함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2. plot-Action의 樣相

한편의 小說을 놓고 볼 때 거기에는 많은 要素의 結合에서 이루어 진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上記 세 作品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面을 考察해 보려고 한다.

春園의 端宗哀史는 世宗 23年(A. D 1466)에서 始作되어 世祖 2年(A. D 1457), 약 15년에 걸친 이야기다. 15년에 걸친 이야기에서 事件의 展開過程은 史의 코오스에 너무나 充實하다. 願命篇, 失國篇, 忠義篇, 血淚篇으

18)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 press. p. 34

19) 姜仁淑: 韓國現代作家論, 同和出版社, p. 115

로 나누어진 端宗哀史는 事件의 展開에 있어 많은 混亂을 보여주고 있다. 事件 構成은 必然性에 依해서라기 보다는 作家의 作爲의인 面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그것은 人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善과 惡을 區分 지워놓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端宗哀史에 있어서는 갈등意識이 없다. 이러한 點은 비단 端宗哀史에 局限된 問題가 아니며 春園의 全作品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作家의 主題意識의 形象化되지 못하고 作者의 肉聲이 表面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春園은 그의 作中人物이나 事件을 既定의 結果를 얻기 위하여 不可思議한 面도 꺼리낌없이 동원하고 있다.

한편 東仁의 大首陽은 세종 30年경(1448)에서 出發하여 세조원년(1455)에 걸치는 약 8년간의 이야기이다. 8년간에 걸쳐 일어난 事件을 다루면서 그 속에서 東仁은 春園에 비하여 어느 정도 필연성을 부여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東仁의 作品은 人物設定부터 새로운 歷史解釋이다. 東仁은 春園의 作品人物中 善人을 惡人 乃至는 無能人으로, 春園의 惡人을 善人으로 하여 새로운 歷史解釋을 試圖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순히 歷史의 歪曲이 아니다. 東仁은 首陽의 왕위찬탈을 合理化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作品은 世祖가 王位에 오름으로 作品을 끝맺고 있다. 그리하여 저 有名한 死六臣에 關해서는 外面해 버리고 말았다. 실상 東仁의 大首陽에서 世祖의 登極으로 作品을 끝맺은 理由는 死六臣에 對한 歷史의 事實이란 벽에 부딪친 結果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東仁의 作品에서 歷史와 歷史小說의 根本的인 差異를 確認할 수 있는 좋은 例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大首陽은 端宗哀史의 否定에서 出發되었다는 點은 東仁에게 있어선 자연히 春園의 端宗哀史를 意識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리라는 것을 念頭에 두고 볼 때 東仁이 그렇게 비난했던 端宗哀史와 따지고 보면 歷史解釋上의 差異를 除外하곤 그 手法에 있어선 그다지 뛰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東仁의 作中人物 自體가 이미 有能과 無能力의 人物로 設定되어 있다는 데서 春園과 同一한 立場이다. 大首陽에서 首陽이 端宗을 上王으로 만든 것을 王보다 上王이 더 높은 位置라고 생각해서 선위한다는 解釋²⁰⁾은 너무나 純眞한 解釋이다. 端宗哀史를 正面으로 否定하고 出發한 大首陽은 보다 뚜렷한 理由를 찾지 못한 채 首陽의 個人的 慾望을 僞裝하고 있다. 그러므로 構成의인 面에서 볼 때 東仁의 大首陽은 필연성

20) 東仁全集 3卷 p. 255 參照.

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虛荒한 浪漫主義 감각에 밀려 들어 갔다고 하겠다.

月灘의 作品「목메이는 女子」는 短篇小說이란 點도 있긴 하지만 春園이나 東仁과는 상당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歷史를 解釋하는 問題라기 보다는 歷史를 背定하고 난 뒤에 그러한 結果에 對하여 原因을 규명하므로써 作家로서의 作業이 무엇인가를 提示해 주었다고 하겠다.

作家에게 있어서 作家의 意圖가 讀者에게 強要事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의 意圖를 讀者에게 강요할 때 文學은 宣傳의 手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點을 고려할 때 春園과 東仁과는 달리 月灘은 讀者에게 그의 意圖에 납득하도록 事件을 構成했다고 하겠다.

3. 忠義觀의 樣相

歷史小說, 特히 王室을 中心으로 일어난 歷史小說에 있어서 主題는 거의 大部分의 忠義에 焦點이 놓여지리라. 그리고 그것은 바로 作家가 歷史를 보는 態度를 가장 鮮明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春園은 그의 端宗哀史에서 王位찬탈의 不當性を 強調하고 있다. 그리고 그 不當性を 行動으로 보여준 死六臣의 忠誠을 높이 評價했다. 그것은 傳統的인 忠義觀이다. 忠臣은 不事二君이란 規範에 盲信하는 것이 端宗哀史다. 成三問을 비롯한 모든 死六臣은 그들의 모진 고난을 忠臣이 걷는 正道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성삼문의 몸둥이가 다타서 없어지기로 성삼문의 가슴에 박힌 일편 중성이야 탈 풀이 있으라」하고 벽력같이 소리를 지른다.²¹⁾

이처럼 불로 지지는 火刑 앞에서 成三問으로 하여금 超人的인 힘은 어디에 根據한 것일까를 생각하면 成三問을 비롯한 그들 死六臣의 行動原理가 너무나 盲信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놈 숙주야 네가 나와 함께 집현전에 입직하였을 적에 영릉(英陵)계 읍서 원손(元孫)을 안으시고 뜰에서 거니시며 무어라 하시더냐. 내가 천추만세에 너희는 이 아이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던 너는 벌써 잊었던 말이나」²²⁾

21) 端宗哀史, 李光洙全集, p.303

22) *ibid.* p.303

여기에서 成三問이 火刑에도 굴하지 않는 理由가 있다. 다만 英陵의 부락과 그 부락을 저버리지 않는 臣下의 義理, 그것이 그를 火刑에도 굴하지 않게 했다는 것은 온당한 態度라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왕위찬탈의 부당성이 좀더 친지하게 論議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한 端宗哀史의 主題意識이 1920年代 韓國 現實과의 關聯下에서 論議할 때 端宗哀史가 갖는 意味는 좀더 比重이 커질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端宗을 國權을 잃은 祖國의 現實로, 首陽을 日帝로 換置시켜 놓고 볼 때 死六臣을 비롯한 忠臣의 端宗復位運動은 獨立運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換置시켜 놓고 볼 때에도 問題는 있다. 端宗哀史가 叙上한 當代的 狀況을 고려했다하더라도 正統性이란 一面만으로 當時의 狀況을 너무나 單純化시키고 말았다. 적어도, 端宗이 首陽보다 無能하지 않다는 事實을, 그리고 端宗을 섬기는 忠誠된 臣下들이 보필이 있었다는 事實과 아울러 首陽의 行爲가 不當함을 지적해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端宗哀史의 主題意識(忠義觀)은 李朝社會를 支配해온 固定된 忠義觀을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看過할 수 없는 것은 그의 主題意識은 1920年代 韓國의 現實이란 문맥과 關聯하여 있다는 점이다.

東仁은 春園의 固定觀念에 反撥을 보이고 있다. 東仁에게 있어서 忠義의 觀念은 좀더 적극적이다. 一定한 法度에 의해서 固定된 忠이 아니라 외로운 임금에게 왕비를 求하여 말벗이 되게 하는 것이 忠誠이요, 喪中이라는 理由로 허약해진 왕에게 고령을 권하는 것이 忠誠이요, 심지어 政治에 혐오를 느낀 왕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도 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東仁의 忠義觀이다. 이것은 儒者들의 盲目的인 觀念主義를 경멸²³ 하려는 東仁의 과장된 表現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東仁의 主題는 냉철한 비판과 自己省察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春園에 對한 반발이 더욱 크게 作用한 結果로 看做함이 妥當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것이 1920年の 韓國 現實에 照應시켜 볼 때 日帝의 侵略을 正當化하는 위협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東仁이 大首陽을 通하여 20年代 狀況을 提示하려는 意圖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東仁小說의 弱點임엔 틀림없다. 그러므로 東仁의 大首陽은 獨特한 歷史解釋을 通하여 새로운 人間像을 創造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론 歷史의 抒情化에 그치고 말았다.

月灘의 경우는 春園의 경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忠에 對한 觀念에서는 春園과 同一하다. 그리하여 死六臣에 對해서 肯定的이다. 春園이 忠을 至上으로 한데 反하여 月灘은 忠보다 子息愛를 우위에 놓은것 처럼 보인다

23) 東仁全集 3卷 P. 25, 51 參照.

다. 그러나 「목매이는 女子」의 焦點은 申叔舟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尹氏에게 놓여 진다는 事實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子息의 목숨을 구하기 爲하여 변절자가 된 남편의 인군에 침을 뱉고 자살한 尹氏의 지조와 절개를 거리고 있다. 그러므로 春園과 月灘의 忠은 至上의 倫理德目으로 設定하여 놓은 점에서 同一한 位置에서 파악될 수 있다. 月灘의 作品을 20年代 韓國現實과 關聯하여 살펴 볼 때 申叔舟에게서 매국노 李完用의 모습을, 尹氏에게서 國民의 모습을 찾아 볼 수도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IV. 結 論

以上으로 春園, 東仁, 月灘의 作品 中에서 同一한 歷史의 素材를 다룬 作品을 살펴 보았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겠다.

첫째로 歷史를 解釋하는 立場에서 春園과 月灘은 肯定的 態度를 취한데 反하여 東仁은 否定的 立場에서 새로운 歷史解釋을 試圖했다.

둘째로 春園과 東仁은 人物設定에 있어서 서로 正反對의 立場을 取하고 있지만 그들 人物들은 善人和 惡人으로 區分하여 狀況과 關聯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 主人公은 平凡한 人物이 아닌 High Mimetic Mode 의 人間像을 창조해 준데 反하여 月灘은 그들 人物에게 善人和 惡人으로 區分하였으나 狀況을 고려하고있으며 主人公은 平凡한 人物인 Low Mimetic Mode 의 人間像을 創造해 주었다.

셋째로 Plot-Action 에서 春園과 東仁의 作品에서 事件의 展開는 필연성에 의해서 展開되지 않고 既定의 코오스를 위해 우연성이 排除되지 못하고 있으며 人物들의 갈등이 없이 先天의 기질로 處理하는데 그치고 말았으나 月灘의 作品은 時間의 處理法의 적용과 아울러 人物의 심리적 갈등을 통하여 필연성을 바탕으로 展開되었다고 하겠다.

넷째로 主題意識(忠義觀)에 있어서 春園과 月灘은 固定된 李朝의 忠義觀인 君子不事二君이란 點을 강조하고 있으나 東仁은 忠이란 盲目性에 反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1920年代라는 現實의 狀況에서 春園과 月灘은 그들의 意識의인 것은 아니라도 日帝侵略의 不當性을 批判한 것이라 할 때 東仁은 그러한 現實을 무시하고 다만 歷史의 抒情化라는 領域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以上の 結論을 통하여 歷史小說이란 단순히 歷史의 事實의 再現이란 一次의 領域에 머물 때 그것은 歷史文學이 志向하는 目標에 到達하지 못하며 그것이 現代의 文脈에서 意味網을 가질 때 비로소 歷史小說로서 그 意味를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